



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



/뉴스

불붙은 광주·전남 통합론... '슈퍼 지자체' 급물살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한 지방 두 가족'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가능적 통합을 넘어 통합 선거론이 제기됐고, 관련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오면서 명분도 쌓이고 있다.

◆강기정-김영록 "통합추진단 구성"... "기회의 창, 쇠뿔도 단김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에 행정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오전 제안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격상해 공동 운영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금이라도 쇠뿔을 뽑아야 할 적이다", "당장이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하자", "광주·전남 통합단체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적으로는 '선(先) 기능 통합, 후(後) 행정통합'을 주장해 온 기존 신중론을 과감히 깨부수고 통합을 향한 '거침없는 진격'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전남이 먼저 제안한 지금, 머뭇거리기 이유가 없다는 게 광주시 판단이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실감장 정책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미래지향적 행정통합이 중요하다"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광주시장·전남지사 통합 한목소리... "공동 기획추진단 구성"

"인구 320만·GRDP 150조 기대", 통합선거론·입법화도 활발

"TK 진통 타산지식... 풀뿌리자치 위축, 공직하모니 등 숙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라며 "특별광역연합을 시작으로, 40년 행정경계를 허물고 굳건한 광역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통합 용역까지 추진했지만, 여러 이유로 열기가 식었다"며 "중앙 정부 인센티브 등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며,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역민 의견도 빠르게 수렴하자"고 주장했다.

◆'슈퍼 지자체' 예고...통합선거론 부상, 여론도 지지

광주와 전남이 합쳐질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 명, 200조 원) ▲세종·대전(144만 명, 71조 원) ▲부산·울산·경남(770만 명, 342조 원) 등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다.

'통합선거'도 공개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전남 폐이스부 글을 통해 "내년 선거 후 차기 시도지사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고 2030 지방선거는 '통합 광주·전남'으로 치르자"고 공식 제안했다.

2030년은 민선 10기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되는 해다.

민 의원은 "합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시·도민 의지를 받아 통합 공론장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으나 선연적 구호에 그쳐서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도 안 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통합 로드맵'과 '정치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드맵이 구속력 높은 정치적 약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우선, 광주 시장, 전남지사 후보는 물론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시·도민들에게 '2030 통합 광주·전남'을 약속하는 일종의 '사회계약' 실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전남조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더욱 강력한 모델인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론도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를 벌인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긍정'도 22.4%에 달했다. '부정'과 '매우 부정'은 10%대 이하 자릿수에 그쳤다.

◆풀어야 할 과제 적잖아... "소모적 논쟁 경계해야"

두 단체장의 의기투합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노릇이 좋은 몰래지만 "통합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995년 전남도청 이전 과정에서, 최근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광주·전남 통합이 화두였으나 번번이 결실을 보지 못한 점, 통합 청사 위치와 기초지자체 축소 권한 논란으로 통합추진단이 폐지된 대구·경북 사례 등은 타산지석이다.

장기간 연구 용역과 지역민 의견 수렴,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직자들의 공감대 형성에는 이은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가시밭길도 만만찮다.

대도시 위상과 관할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 저하, 인사·재정권 재조정 등에 따른 힘겨루기, 도·농 불균형, 여기에 세수 감소와 기초의회 소멸에 따른 풀뿌리 자치 약화,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도 숙제다. 특별자치도로 갈 경우 광역시가 '특례시'로 격하되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 변동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문제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돼선 안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경우 행정 낭비,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만 날을 수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광주·전남, 맑은 날씨 속 2026년 해돋이 관측 가능

전남 서해안 구름대 영향으로 관측 어려울 수도

31일부터 기온 뚝... 대설·강풍 등 위험 기상도

2026년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 구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 속에서 해돋이·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대 영향으로 관측이 어려울 수도 있다.

광주 지역 해돋이 시각은 오전 7시 41분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해돋이 시각은 여수 오전 7시 37분, 순천 오전 7시 38분, 고흥 오전 7시 38분, 완도 오전 7시 39분, 해남 오전 7시 40분, 목포 오전 7시 42분, 영광 오전 7시 43분, 신안 흑산도 오전 7시 45분으로 예상된다.

오는 31일 해돋이 시각은 광주 기

온 오후 5시 30분이다. 여수·순천 오후 5시 29분, 고흥 오후 5시 31분, 영광 오후 5시 32분, 목포·완도·해남 오후 5시 34분, 신안 흑산도 오후 5시 38분으로 전망된다.

31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날 아침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0도 분포를 보이겠다.

새해 첫날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한기가 깊게 내려오면서 서해안 중심 대설과 강풍, 풍랑, 강추위 등 위험기상이 나타나겠다. 오후부터는 전남서해안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주 강추위가 예상되니 야외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빙판길과 눈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2026년 광주' 돌봄·아동·보육·청년·경제·일자리 지원 확대

2026년 광주지역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시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부터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한다. 생년 애국지사에게는 기존 월 21만5000원에서 23만원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는 월 8만원(기존 6만5000원)을 지원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도 확대했으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안화·지원액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늘렸다.

전체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원권을 지급하며 2025년도에 둘째 이

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기존 4·5세에서 3·4·5세로 대상을 넓히고,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 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늘린다.

발달지원 아동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영유아 발달컨설팅 사업 대상은 기존 3세에서 2·3세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3% 이하→중위소득 65% 이하)하고 학용품비 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문화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